

대학언론의 현황과 과제

이 호 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 머리말

현재 대학언론으로는 크게 학보(신문), 교지(잡지), 방송의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대학언론의 핵심은 역시 학보, 즉 대학신문이다. 따라서 이 글도 대학신문을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대학신문들은 현재 전국 130여 개 대학에서 총 약 250만여 부가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각 대학신문 하나 하나는 많아야 수만 부에 불과하지만, 전체로서는 대단히 많은 발행부수다. 이러한 발행부수만으로도 대학신문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특히 한국의 무시할 수 없는 비판세력인 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더 무시할 수 없다.

더구나 제도권 언론들이 거의 모두가 집권세력과 기득권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기존질서를 유지하려는 보수적 언론이기 때문에 대학언론과 같이 집권세력이나 기득권세력에 반하는 논조를 취하는 언론은 더 소중하다.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대학언론과 같이 보수언론과는 달리 진보적인 논조를 가진 언론도 필요하다. 그런데 대학언론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이 글은 대학언론의 발전을 위해서 대학언론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개선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논의하려는 것이다.

2. 대학언론의 특성과 명암

대학언론은 일반 언론과 비교해 볼 때,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특성들은 강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대학언론의 그런 특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자.

대학언론의 가장 큰 특성은 비상업성이다. 대학언론은 영리 추구를 위해 존재하는 언론이 아니다. 대학언론의 예산은 대학의 예산 속에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언론은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언론들과는 달리 독자들의 취향이나 기호에 영합하지 않아도 된다. 대학언론의 비상업성은 일반 신문의 경우, 전체 지면에 대한 광고 지면의 비율이 45.9%인데 반해 대학신문의 경우는 30.9%이고, 그나마 자체 광고가 전체 광고의 37.5%나 된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비상업성 때문에 대학언론이 수용자들의 취향이나 기호를 도외시하거나 그에 둔감한 나머지 읽히지 않는 언론으로 전락해가는 한 원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학언론은 '소비자 없는 상품'이라는 비판도 있다. 현재 우리 대학언론들의 최대 당면과제는 이 문제를 타개하는 것이다.

대학언론의 또 하나의 특성은 진보적 논조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학언론은 비상업적이고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 또 집권세력을 비롯하여 어떤 기득권세력이나 기성세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더구나 대학언론은 이상주의적이고 현실적 이해관계에서 초월한 대학생들에 의해, 또 그런 대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제작된다. 따라서 대학언론은 사회의 일반 언론과는 달리 진보적이고 개

혁적인 논조를 견지할 수 있고, 또 그런 논조야말로 대학언론다운 논조다. 진보적 논조야말로 대학언론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때문에 대학언론의 논조가 지나치게 과격하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실제로 한 때는 그랬었다. 그러나 지금은 논조가 지나치게 과격하거나 냉소적이면 대중성을 상실하기 쉽다.

일반 언론의 독자들과는 달리 대학언론의 수용자들은 매우 균질적이라는 특성도 갖고 있다. 그들은 유사한 연령의 젊은이들이며,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분명한 소속감이 존재한다. 게다가 그들은 성적 문제, 장애 문제, 이성 문제 등과 같은 공통의 문제로 고민을 한다. 따라서 대학언론은 수용자의 취향이나 관심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수용자의 관심이나 취향에 부응하는 언론을 만들어내는 것도 어렵지는 않다. 또 수용자의 이런 동질성 때문에 대학언론이 어떤 문제에 대한 편집방침이나 논조를 결정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대학언론의 편집방침이나 논조가 경직되기 쉽다.

대학언론의 또 하나의 특성은 비전문가들에 의해 제작된다는 점이다. 대학언론 제작의 실질적 책임자인 주간교수를 비롯하여 대학언론의 구성원들 모두가 전문적인 언론인이 아니다. 간혹 기자출신의 교수나 신문방송학 교수가 신문주관을 맡고 프로듀서출신의 교수가 방송주관을 맡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다. 따라서 신문의 경우 기사작성이나 편집이, 그리고 방송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이나 편성이 서툴고 어색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런 아마추어적인 언론 제작으로 대학언론은 일반 언론들이 빠지기 쉬운

고정된 틀이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참신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대학언론은 기사작성과 편집 그리고 프로그램 제작이나 다루는 내용에서 강한 실험성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이다.

대학언론은 대학의 일부이며 대학의 기능에 봉사해야 하는 언론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한편으로는 언론으로서 저널리즘에 충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의 아카데미즘을 잘 조화시켜야 한다. 흔히 저널리즘은 현실에 매몰되기 쉽고 아카데미즘은 이상에 빠지기 쉽다. 따라서 저널리즘과 아카데미즘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 양자의 문제를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는 대학언론에 주어진 좋은 가능성이기도 하다. 대학언론은 현실과 이상의 어느 한쪽에 매몰되지 않은 균형 감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대학언론의 조직과 운영의 문제점

어떤 제도이나 그 조직과 운영에서 여러 문제가 있듯이 대학언론의 조직과 운영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제 우리 대학언론들이 겪고 있는 조직과 운영상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자.

대학언론의 운영과 조직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편집권 또는 편성권의 문제다. 이 문제는 별도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먼저, 대학언론은 예산부족과 경영부재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1995년 현재 전국 4년제 대학들은 대개 8면의 신문을 주간 내지 격주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대학신문의 예

산은 대개 연간 수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의 규모다. 소수의 몇몇 대학들을 제외하고는 이들 대학언론의 예산이 충분하지 못해 좋은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부터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게다가 대학언론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학교당국이나 책임자의 노력이 거의 없다.

현재 많은 대학언론들이 학생기자의 충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생들이 정치의 민주화를 비롯하여 사회문제에 관심이 컸던 과거에는 대학언론 기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대학언론들이 학생기자나 방송요원 충원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최근에는 해마다 지원율이 떨어져, 한국언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995년의 경우 신문기자 지원을 평균이 1.8 대 1, 방송요원 지원율은 평균 2.15 대 1이었다. 학생기자의 부족으로 예산이 있음에도 신문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학생들이 사회문제보다는 자신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성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학생기자들을 투사로 만들기 위해 선배기자들이 후배기자들의 기율을 엄격히 하고 가혹한 훈련을 시켰으나, 이제는 투사로 만들기 위해서보다는 대학언론의 기자직을 쉽게 그만두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고 한다.

사실 대학언론의 학생기자는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 취재와 편집과 제작에 매달리다 보면 강의를 빼먹기 일쑤고 공부에도 열중하기 어렵다. 따라서 학점도 잘 나오지 않게 되고, 기타 다른 대학생활의 많은 부분도 희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작업환경도 좋지 않고, 늘 스트레스를 받으며, 며칠씩 밤샘을 하기도 하고, 학생기자직 수

행에 따르는 특전이나 보수도 신통치 않다. 그러나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심해진 요즘에는 학생들이 대학언론의 기자직을 지망하지 않고, 지망한 경우에도 별로 오래 하지 않고 그만두는 것이다.

이런 학생기자 충원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생기자의 취재활동비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학생기자의 장학금 수혜액을 현실화하며, 기숙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졸업시 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선해주는 등과 같은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학생기자들의 작업량을 줄여주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가령, 편집 전문가를 고용하여 편집에 관한 업무를 맡기고 학생기자들은 편집기획, 취재 및 기사작성만을 맡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예산의 문제가 따른다. 우리 대학들의 재정 형편상 대학언론에 넉넉한 예산을 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당국의 결심에 따라서는 가장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예산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대학신문의 광고수입을 대학신문의 발행비로 충당하지 않고 대학의 예산으로 흡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학신문의 발행비로 배정하는 일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신문, 영자신문, 대학방송 등 대학의 각종 언론관계 기관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예산과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신문방송학과가 있는 학교에서는 대학언론을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의 언론 제작 실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학생기자 충원의 문제도 해소되고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에게 실

질적인 언론 제작 실습의 기회도 부여할 수 있다. 우리와 같이 신문방송학과에서 언론 제작 실습을 제대로 시킬 수 없는 여건에서는 특히 더 대학언론의 제작에 신문방송학과 학생들의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학생기자를 신문방송학과 학생으로 충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졸업후 언론인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 가운데서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대학언론의 비판기능의 문제

대학은 교육 및 연구와 더불어 비판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대학의 비판기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인간이나 제도나 사회든 비판을 필요로 한다. 비판이 없으면 잘못을 교정할 기회를 잃고 결국 잘못의 누적으로 멸망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체제의 모순이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비판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의 잘못을 교정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잘못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일시에 무너져버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대학과 대학사회를 대변하는 대학언론은 싹든 좋든 사회와 현실에 대한 비판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실제로 대학이나 대학언론은 비판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대학은 진리를 탐구하고 정의를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이다. 진리와 정의는 당연히 거짓과 불의에 대하여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진리와 정의는 이상이고, 거짓과 불의는 현실이다. 이상은 현실을

비판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이상이나 이상주의가 대학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대학에서 활기를 띤다. 대학이 사회 현실로부터 어느 정도는 절연되어 있는 상아탑이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유로운 토론의 광장이며, 아직은 순수한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의 전당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와 같이 일반 언론계가 집권세력이나 기득권세력과 같은 강자들을 대변하고, 기존질서를 옹호하는 보수언론이 지배하는 현실에서는 대학신문과 같이 기득권세력이나 보수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은 진보적이고 비판적인 언론활동은 더욱 더 절실히 요구된다. 대학신문은 우리 사회의 대안적인 언론으로 기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대학생들은 현실비판과 독재세력에 대한 저항과 투쟁에 충신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그런 현실비판과 투쟁에 힘입어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촉진되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은 많은 희생을 치렀다. 이 점에서 우리 사회는 대학생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6월항쟁 이전에는 대학생들의 그런 현실비판이나 투쟁을 대학언론은 정권이나 학교당국의 통제 때문에 안타깝게 지켜보아야만 했다. 그러나 6월항쟁 이후에는 대학언론이 언론자유를 구가하면서 대학생들의 현실비판과 투쟁의 대변지가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 대학언론들의 현실비판은 과잉이었고, 특정 이념에 지나치게 얽매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중언론들이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비민주적인 정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 대학언론이 그렇게 비판과잉이 되고, 특정 이념에 얽매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비판이 지나쳤거나 특정 이념에 경도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상황이 바뀐

지금도 그런 비판과잉성과 특정 이념에의 편향성이 강하게 남아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대학언론이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대학언론이 특정 이념에 편향되어 선전선동의 투쟁지로 기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크게 부정 시비가 없는 선거에 의해 정당하게 선출된 정권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다거나 지나치게 투쟁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독자들에게 어필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특정 이념만을 교조적으로 따른다면 더욱 더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특정 이념에의 교조적 추종은 그 자체가 하나의 구속이다. 자유로운 비판을 위해서는 어떤 구속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그 특정 이념 자체도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언론은 경직된 이념에 기초하여 저항과 투쟁을 목표로 하는 대항지보다는 자유로운 입장에서 비판과 대안을 목표로 하는 대안지를 지향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판기능을 수행하되, 대학언론에 요구되는 다른 역할도 조화롭게 수행하는 균형 감각을 갖추어야 한다.

5. 대학언론의 편집권 문제

언론에는 통제와 편집권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대학신문에서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대학신문에서는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통제와 편집권의 문제가 더 빈번히 그리고 더 첨예하게 발생할 소지마저 있다.

대학신문은 대학 책임자, 즉 총장이나 학장을 발행인으로 하고, 주간교수를 실무 책임자로 하여 학생들에 의해 제작된다. 말하

자면, 총장으로 대표되는 학교는 대학신문의 소유주이고, 주간교수는 학교에 의해 임명된 편집의 최고책임자이며, 학생기자들은 일선 기자들인 셈이다. 일반 언론에서 소유주는 편집권을 소유주의 권리로 보는 반면에, 일선 언론인들은 언론인들의 집단적 권리로 본다. 대학신문에서도 학교는 대학신문의 편집권이 학교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학생들은 신문을 직접 제작하는 자신들의 집단적 권리로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양자 사이에는 언제나 편집권의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의 가능성이 온존한다. 그런데 일반 언론에서는 일선 기자들이 언론사에 생계를 걸고 있는 피고용자들이기 때문에 사주나 그 대리인인 편집책임자와 대립하는 것을 가능하면 피하게 된다.

그러나 대학신문의 학생기자들은 생계를 의존하는 피고용자들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에의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교나 그 대리인인 주간교수와 대결적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더 크다. 더구나 대학신문의 운영비 대부분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대학신문의 일차적인 대상도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이기도 한 학생기자들의 주체의식이 더 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학교측이나 주간교수는 교육자로서의 교수와 피교육자로서의 학생이라는 대학사회의 일반적 관계를 대학신문의 주간교수와 학생기자 사이에도 적용하려 들 것이다. 말하자면, 학교나 주간교수는 배우는 입장에 있는 학생들이 무조건 그들의 지시에 따르기를 바라고 강요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기자들은 한편으로는 학교라는 특수사회의 규칙에 어느 정도는 속박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언론의 자유 또는 편집의 자율성을 내세워 학교나 주간교수의 지시를 따르지만은

않을 것이다. 특히 그런 지시가 외부적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의심받거나 학교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더욱 더 크게 반발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학생기자들은 자신들이 아직은 경험이나 지식이 일천하고, 따라서 자신들의 주장이나 행동이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학교나 주간교수의 주장이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인식의 전환은 학교나 주간교수에게 요구된다. 학교나 그 대리인인 주간교수에게는 대학신문을 단순한 교육의 연장 수단이 아닌 언론으로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언론의 기본적인 사명은 환경의 감시다. 언론은 자신의 환경을 감시하여 문제를 고발하고 비판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언론이 그런 감시와 비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는 필수적이다. 대학에 부정이나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숨길 것만은 아니다. 잘못을 드러낼 때 치유책도 마련되는 것이다. 공산권의 언론들은 공산체제의 잘못을 숨기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말한 탓으로 문제를 제때제때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가 쌓이고 쌓인 나머지 결국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만 교훈을 새길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자세전환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설령 자세전환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막상 학교측에 불리한 기사나 외부의 압력을 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려 들 것이다. 그것은 인지상정이다. 따라서 대학신문의 편집권이 어느 일방에 의해 힘으로 결정되거나 편집권을 놓고 학교와 학생기자가 대립하는 사태를

가능하면 막거나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한 제도적 장치로는 대학의 구성원들인 교수, 학생, 직원의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나 대표단을 구성하고 이 기구에 대학신문의 운영에 관한 폭넓은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 기구는 대학신문에서 언론자유나 편집권의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편집권 문제와 관련하여 또 하나의 문제는 학생기자나 주간교수 또는 학교당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일이다. 학생기자나 주간교수 또는 학교 간의 마찰은 양자의 견해 차이에서도 발생하지만, 서로 협상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관계 때문이기도 하다. 아직도 우리 풍토에서는 학생과 교수 사이에 협상은 말할 것도 없고, 격의없는 대화도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양자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빚어질 우려가 크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주간교수와 학생기자 사이에 완충역할을 하면서 학생기자를 지도·감독하고 또 그들의 일을 덜어줄 수 있는 전문기자를 두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자는 반드시 대학신문기자 출신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학생기자 출신은 학생기자와는 선·후배간이므로 인간적인 유대가 클 것이고, 선배기자가 보유한 언론 제작상의 지식이나 기술을 후배기자에게 제대로 전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6. 대학신문에 요구되는 새로운 모습

대학언론의 문제가 이런 것들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편집방침

이라 할 수 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대학언론들은 극심한 탄압으로 숨을 죽여야 했다. 그러나 1987년 6월항쟁의 덕으로 정치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대학언론도 언론자유를 구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대학언론들은 학생운동 세력을 대변하면서 변혁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대항언론으로 되었다. 그러나 '90년대 초 동구권의 몰락으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국내에서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등 국내·외의 정세가 크게 변하면서 대학생들의 관심도 사회변혁보다는 취직과 장래문제 등 사적 문제로 쏠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세와 대학생들의 의식 변화는 대학신문이 과거와 같이 대항언론적 역할만으로는 존립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 말하자면, 대학신문이 정치지향적이고 투쟁적인 논조만으로는 수용자들에게 어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런 정세와 대학생들의 변화에 따라서 대학신문들이 그 취급대상과 논조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인 것도 사실이다. 특히 대학신문은 1991년 주체, 조직, 지면의 혁신을 통한 '대중신문'으로의 전환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한 편집방침으로 ① 우선 대학인에게 읽혀져야 한다, ② 외부 필자에 의한 논문 위주의 제작 방식을 지양하고 기자들이 발로 쓰는 글의 비중을 늘린다, ③ 거창한 주제, 정치 일변도보다는 주위의 생활적 소재로 본질에 접근한다, ④ 학생 대중의 요구와 수준을 반영하고 독자의 참여 폭을 넓힌다, ⑤ 모니터 통신원, 편집위원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전 대학인의 신문이 되도록 한다 등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편집방침으로 상당한 변신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과거의 체질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다.

그렇다면 변화된 상황에서 대학신문에 요구되는 바람직한 변모는 어떤 것일까? 새로운 상황에서 대학신문에 요구되는 역할은 무엇인가?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신문이 속해 있는 대학의 본질적—또는 정상적—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다.

대학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 즉 교육, 연구 그리고 비판이라 할 수 있다. 대학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는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의 양성, 즉 학생들의 교육이다. 교육은 크게 학생들이 한 인격체로서 필요한 소양과 품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교양교육과 전공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전수하는 전문교육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불행히도 대학은 교양교육을 소홀히 하면서 전문교육만을 강화하고 하고 있다.

대학의 중요한 다른 하나의 기능은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다. 연구는 순수한 학문적 또는 이론적 관심의 문제에 관한 것도 있고, 사회에서 그 해결책을 요구하는 실제적인 문제에 관한 것도 있다. 이러한 연구의 방법과 결과는 교육을 통해 전수된다.

대학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사회와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대학은 사회의 일부이고 사회의 필요에 의해 존재하는 제도다. 따라서 대학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대학은 사회에서 절연된 고고한 존재가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더구나 대학은 진리와 이상과 정의를 가르치기 때문에 사회와 현실이 그렇지 못할 때 그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은 하나의 의무가 된다.

대학이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 대

학언론 역시 이런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저간에 우리의 대학들은 이런 세 가지 역할을 제대로 잘 수행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우선 교수는 모순된 현실을 외면한 채 무기력했다. 그렇다고 교육이나 연구에 전념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학생들은 현실비판에는 적극적이었지만, 그로 인해 교육과 연구에는 소홀했다. 대학의 이런 현실은 대학언론에도 반영되었다. 학생들의 의사를 주로 대변하는 대학언론은 학생들의 현실비판 활동의 매개체 역할을 주로 하였다. 그리고 대학언론의 그런 역할은 그 당시로서는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는 균형된 역할이 요구된다. 말하자면, 대학언론이 교육과 연구의 기능도 적극적으로 보조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대학은 대학생만으로 이루어진 제도도 아니고, 사회에서 완전히 절연된 상아탑만도 아니기 때문에 대학언론은 대학생만을 소구대상으로 하는 ‘대학생 언론’보다는 대학의 구성원을 모두 포괄하는 대학 공동체에 봉사하는 진정한 의미의 ‘대학의 언론’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7. 맺는 말

우리 사회에서 대학언론, 특히 대학신문은 하나의 당당한 언론이다. 대학언론은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고, 이상주의적 성향을 띠며, 도전의식과 실험정신으로 충만하고, 진실과 정의를 배우며 추구하는 대학생들에 의해 제작되고 읽히는 언론이다. 그래서 그 논조는 진보적이고 지배세력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집권세력과 기득권세력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는 보수언론이 지배적인 언론 상황에서는 그 존

재의의가 더욱 더 빛나는 소중한 언론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대학언론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언론의 논조가 다소 과격하고 냉소적이라도 관용하고, 그 비판이 거칠고 직설적이라도 인내하며, 언론으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이적 표현이니 반국가단체의 찬양·고무니 하는 실정법상의 조항으로 대학신문이나 그 기자에게 재갈을 물리려 해서는 안 된다. 대학언론은 대학교육의 연장이기 때문에 사회문제가 아니라 학술, 교양, 문예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아카데미즘을 추구해야만 한다거나, 학교당국과 주간교수의 지시나 검열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거나, 학교의 홍보수단이기 때문에 학내문제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거나 하는 주장을 대학언론이나 그 기자들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대학언론은 새로운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변신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그것은 대학 본래의 고유기능이라 할 수 있는 교육, 연구, 비판을 균형되게 매개하는 일이다. 그것은 또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을 위한 언론'의 역할이 아니라 대학의 구성원 모두를 포괄하는 대학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학 공동체를 위한 언론'으로 거듭나는 일이기도 하다.

저간에 우리의 대학언론은 대항언론으로 존재해 왔다. 혹독한 군사독재정권의 대학신문에 대한 통제의 고삐가 풀리자, 그 반동으로 투쟁적인 이념지로 변신한 것이다. 그래서 지나치게 정치지향적이고 특정 이념에 지나치게 편향적인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대항언론으로서의 그러한 성향이 오늘

날까지도 우리의 대학언론들에서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그러한 성향이 어느 사이에 체질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대학언론들이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정 이념을 기반으로 선전선동을 주임무로 하는 투쟁적인 언론으로서보다는 아무런 이념에도 구속되지 않은 채 자유로운 입장에서 차분하게 따지고 비판하며 대안적인 주장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언론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정치편향의 언론에서 대학신문에 요구되는 정상적인 역할들을 균형있게 수행하는 언론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 마디로 말하면, 대학언론은 선동적 대항언론에서 비판적 대안언론으로 전환해야 한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의 언론들이 정권이나 자본을 감시하고 비판하기 보다는 여전히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의 대변자로서 역할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정권이나 자본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진보적 대안언론으로서 대학언론의 역할은 더욱 더 절실하게 요구된다. 거의 유일하게 대학언론만이 사심 없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에 있기 때문이다. ■

이효성/서울대 문리대와 신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신문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동중이며, 한국사회언론연구회 회장, 도쿄대 사회정보연구소 객원교수, 기독교방송 해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정치언론』, 『언론비판』, 『한국 사회와 언론』, 『한국언론의 좌표』 등이 있다.